

## 학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저는 2025-26 학년도를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쁘며,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자이자 학부모로서 수많은 개학 첫 날을 맞이해 왔습니다—그러나 금년은 제가 교육감으로서 맞는 “학교 시작 첫 날”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 함께 성취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새 학년도의 시작을 기다려왔습니다.

우선, 우리는: NYC Reads, NYC Solves, Student Pathways, NYCPs Cares 등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읽기쓰기 및 수학 수업을 재구성하는 NYC Reads 및 NYC Solves 는 186 개 학교에서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며, 고등학생들을 고성장 직종의 커리어로 이끄는 FutureReadyNYC 프로그램에는 50 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가장 최신 이니셔티브인 NYCPs Cares 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보살핌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본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주도 괴롭힘 방지 및 흡연 방지 캠페인과 함께 패밀리 커넥터(Family Connector)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가족 일원과 커뮤니티 자원 봉사자가 다른 가정들이 뉴욕시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당장 저희의 2025 뉴욕주 시험 결과만 보더라도 읽기쓰기 및 수학에서 매우 희망적인 진척을 보여주었습니다. 3-8 학년 중 “숙달(proficient)”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읽기쓰기에서는 7.2 포인트, 수학에서는 3.5 포인트 증가하여 2012 년 이후 이들 과목에서 최고의 숙달 비율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간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가족들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할 일은 더 많겠지만 이러한 성취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올해, 저희는 이러한 진척 위에 지적 호기심과 강도 높은 학업을 더욱 강조하여 우리 뉴욕시의 교실들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고, 심도 있는 사고와 수많은 깨달음의 순간들로 채워 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학교 일과 중 학생의 개인 소지 인터넷 접속 가능 전자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신규 뉴욕주 법을 시행하여, 학교 생활에 끼치는 방해물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미션을 완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동반자로 삼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교직원, 가정, 학부모 리더, 그리고 우리 뉴욕시공립학교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서 보여주시는 학생들에 대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개학 첫 날이 되기를 빌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가며,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교육감